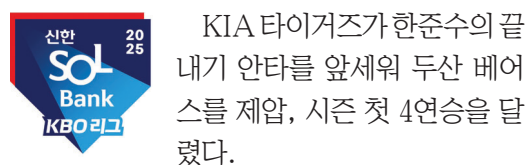


# 봤지? 5·18 설움 날린 한준수 연장 끝내기타…KIA 4연승

두산 5-4 제압 시즌 첫 스윕  
승률 5할…SSG와 공동 4위  
선발 김도현 6이닝 3실점



KIA 타이거즈가 한준수의 끝내기 안타를 앞세워 두산 베어스를 제압, 시즌 첫 4연승을 달성했다.

KIA는 18일 광주-기아 챔피언스 필드에서 열린 2025 신한은행 SOL 리그 홈경기 두산과의 경기에서 연장 10회 접전 끝에 5-4 승리를 거뒀다.

이날 승리로 22승(22패)을 기록한 KIA는 5할 승률을 맞추면서 SSG 랜더스와 함께 공동 4위에 올랐다. KIA는 전날 열린 더블헤더 1, 2차전을 각각 4-1, 5-2로 제압했고 이날 경기까지 싹쓸이하며 시즌 첫 스윕을 완성했다.

선발 김도현이 6이닝 8피안타 4탈삼진 3실점으로 제몹을 다했고 김기훈(0이닝 1실점)-김건국(0%이닝)-장재혁(0이닝)-윤종현(2%이닝)-전상현(1이닝 이상 무실점)이 두산 타선을 잘 틀어막았다. 타선에서는 한준수가 결승타 포함 멀티히트를, 김규성이 2안타, 오선우가 1안타 2타점으로 팀 공격을 이끌었다.

3회까지는 팽팽한 투수전이었다. 4회 김도현이 두산 강승호에게 1타점 적시타를 맞으며 선취점을 내줬지만 곧바로 KIA가 반격에 나섰다. 4회 말 최형우의 볼넷으로 만든 1사 후 오선우가 투런포를 터뜨리면서 2-1로 경기를 뒤집었다.

5회에는 두산 정수빈에게 솔로포를 맞았고 KIA는 박정우의 안타로 만든 2사 2루에서 김도영의 1타점 적시 2루타로 재차 리드를 잡았다. 이어 최형우가 바뀐 투수 고효준을 상대로 1타점 적시타를 추가, 4-2로 달아났다.

하지만 6, 7회 두산 강승호에게 1타점 적시타를 김재환에게 땅볼로 4-4 동점을 허용했다. 7



18일 광주-기아 챔피언스 필드에서 열린 2025 신한은행 SOL 리그 두산과의 경기. 10회 말 1사 1, 2루에서 끝내기 안타를 친 KIA 한준수가 기뻐하고 있다. KIA 제공

회 2사 1루에서 김건국이 왼쪽 중야리 통증을 호소하며 병원 검진을 위해 이탈했고, 장재혁이 구원 등판했지만 볼넷 두 개를 허용하며 2사 만루 위기를 맞았다. 다행히 윤종현이 삼진으로 위기를 넘기며 추가 실점을 막았다.

KIA는 7회 말 박찬호, 최형우, 김도영의 연속 볼넷으로 얻은 2사 만루 찬스를 후속타 불발로 살리지 못했고, 8회 1사 1, 2루 득점 기회도 무산됐다.

9회에는 두산 최지강을 공략하지 못하면서 무기력하게 삼자범퇴로 물러났다.

결국 승부는 10회 갈렸다. 김호령의 2루타로 공격의 물꼬를 튼 KIA는 김규성의 몸에맞는볼로 1사 1, 2루 기회를 잡았고 한준수가 풀카운트 접전 끝에 중견수 키를 넘기는 안타를 터트리며 승리를 확정지었다.

경기 후 이범호 KIA 감독은 “필승조가 나올 수 없는 상황에서 거둔 승리라 더욱 의미가 큰

것 같다. 투수 쪽에서는 윤종현의 활약이 돋보였다. 윤종현의 무실점 투구가 없었다면 오늘 승리를 장담하기 어려웠을 것이다. 올 시즌 최고의 투구였다. 김도현도 선발 투수 몫을 다해줬고, 전상현도 1이닝을 잘 막아줬다”고 밝혔다. 이어 “타자쪽에서는 경기 후반 대타로 나가 끝내기 안타 포함 2안타를 기록한 한준수를 칭찬해주고 싶고, 투런 홈런을 기록한 오선우와 끝내기 승리의 디딤돌이 된 김호령, 공수에서

좋은 활약을 해준 김규성까지 고생 많았다”고 말했다.

끝내기 안타의 주인공 한준수는 “끝내기에 욕심을 내진 않았다. 올해 성적이 안나오긴 했지만 욕심보다는 ‘가볍게 연결해주자’라는 생각으로 임했다. 결승타를 치고는 속이 후련하다는 생각을 했다”며 “올해 들어서 정확하게 후회 없는 스윙을 한 것 같다”고 소감을 밝혔다.

조혜원 기자

## 이범호 감독 “정해영 300세이브 거뜰”

타이거즈 프랜차이즈 최다 세이브

“몸과 멘탈을 잘 관리하고 있고 아직 20대기에 앞으로 300세이브 달성도 기대할 수 있다. 우리 팀이 정해영을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 매년 좋은 시즌을 보낼 수 있을 것이다.”

KIA 이범호 감독이 마무리 투수 정해영에게 아낌없는 신뢰를 보였다.

정해영은 지난 17일 광주-기아 챔피언스 필드에서 열린 두산과의 더블헤더 1차전 9회 초, 팀이 5-2로 앞선 상황에서 마운드에 올라 삼자범퇴로 깔끔히 경기를 마무리했다. 이 세이브로 통산 133세이브를 기록, 선동열(132세이브)을 넘고 타이거즈 프랜차이즈 최다 세이브 보유자가 됐다. 정해영은 이어 열린 2차전에서도 세이브를 추가하며 통산 134세이브를 기록했다.

이범호 KIA 감독은 “입단 이후 마무리 투수로서 5년간 꾸준히 팀의 승리를 책임져줘 고맙



정해영

다”며 “선동열 이후 한참 동안 깨지지 않았던 기록이었다. 정해영이라면 충분히 더 큰 기록을 세울 수 있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KIA는 선동열, 임창용 이후 무려 26년간 ‘구원왕’ 계보를 잇지 못했으나 만 24세의 정해영이 그 명맥을 이어가고 있다. 정해영은 2020년 KIA 1차 지명으로 입단한 뒤 2년 차였던 2021년부터 마무리 투수로 활약 중이다. 데뷔 첫해 34세이브를 시작으로 2022년에는 타이거즈 최초 2년 연속 30세이브, 2023년에는 3년 연속 20세이브를 달성했다. 지난해는 KBO 리그 역대 최연소(23세 2개월 10일) 100세이브와 데뷔 첫 세이브왕에 오르며 ‘수호신’으로 자리매김했다. 조혜원 기자

## 전국장애학생체전 폐막…광주 46개·전남 73개 메달

광주·전남이 지난 13~16일 경남 일원에서 열린 제19회 전국장애학생체육대회에서 각각 46개, 73개의 메달을 획득했다.

광주 선수단은 11개 종목에 123명(선수 76명, 임원·보조자 47명)의 선수단이 출전, 금메달 16개, 은메달 12개, 동메달 18개 등 총 46개의 메달을 획득했다. 이는 작년 대회(총 38개)보다 8개가 늘어난 수치다.

역도 종목에서는 김유나(선예학교)가 여자 -60kg급 지적 OPEN 중등부 3종목(스쿼트·데드리프트·파워리프트 종합)을 석권하며 3관왕에 올랐다. 신정아(선예학교)는 여자 -60kg급 지적 고등부 스쿼트 경기에서 66kg을 들어 올리며 학생신기록을 갈아치웠다.

육상의 김유은(선우학교), 이가는(선명학

교), 배드민턴의 송형우(선광학교), 조정의 문가영(광주자연과학고)은 각각 2관왕을 차지했다.

전남도선수단도 괄목할 성과를 거뒀다. 10개 종목에 참가한 147명의 선수들이 금 14, 은 28, 동 31개 등 총 73개의 메달을 수확했다.

마지막 날 배드민턴 여자 단식(지적) 부문에서 김예지(함평영화화고)가 금메달을 추가하며 대미를 장식했다. 육상과 수영에서는 2년 연속 금메달리스트도 나왔다. 노연희(은광학교)는 육상 100m·200m(시각장애), 김수현(구례여중)은 수영 배영·평영 100m(지적장애)에서 각각 2관왕을 달성했다.

e스포츠에서는 금 2, 은 6, 동 6으로 종합 2위에, 스포츠에서는 금 2, 은 1, 동 9로 종합 3위에 올랐다. 조혜원 기자

## ‘박인혁 헤더 결승골’ 광주FC, 포항 잡고 5위 도약

1-0 승…상위권 추격 가속도

광주FC가 포항 원정에서 귀중한 승점 3점을 챙기며 상위권 도약에 성공했다.

광주는 18일 포항스틸야드에서 열린 하나은행 K리그1 2025 14라운드 포항 스틸러스와의 경기에서 후반 44분 박인혁의 결승 헤더골에 힘입어 1-0 승리를 거뒀다. 승점 22점을 기록한 광주는 5위로 올라서며 포항(승점 19·6위)과 자리를 맞바꿨다.

경기 초반 변수도 있었다. 광주는 전반 3분 만에 김진호가 부상으로 이탈했고, 김한길도 급히 투입됐다. 골키퍼 김경민의 선방에 조르지, 이호재, 김동진의 슈팅을 막아냈다.

광주는 전반 종료 직전 결정적인 기회를 잡았



광주FC 박인혁이 18일 포항스틸야드에서 열린 하나은행 K리그1 2025 14라운드 포항 스틸러스와의 경기에서 후반 44분 결승 헤더골을 넣은 뒤 환호하고 있다. 한국프로축구연맹 제공

으나 놓쳤다.

포항 조르지의 반칙으로 얻은 페널티킥 찬스에서 아사니의 원발 슈팅이 상대 골키퍼 황인재에게 막히며 무산됐다.

후반에도 팽팽한 흐름이 이어졌다. 광주는 정지훈을 빼고 오후성을 투입하며 공격 변화를 줬고, 후반 19분에는 박인혁과 최경록을 동시에 투입해 골을 노렸다.

무승부의 기운이 짙어지던 후반 44분 광주가 기어코 포문을 열었다. 최경록이 울린 프리킥을 박인혁이 문전에서 정확한 헤더로 마무리하며 결승골을 터뜨렸다.

남은 시간 포항의 파상 공세를 침착하게 막아낸 광주는 원정에서 귀중한 승리를 거두며 상위권 추격에 속도를 냈다. 조혜원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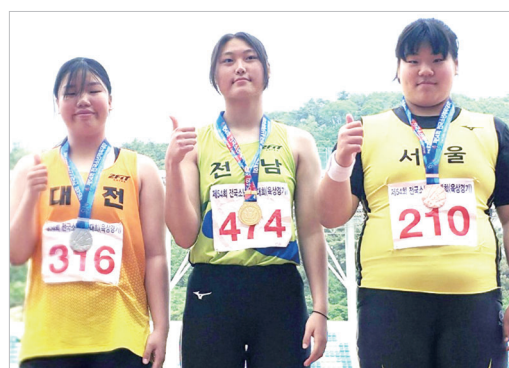
## 목포하당중 김태빈, 소년체전 2년 연속 2관왕 쾌거

원반던지기·포환던지기 ‘금’

목포하당중 김태빈(3년)이 제54회 전국소년체육대회 2관왕에 올랐다.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2관왕이다.

김태빈은 18일 김해종합운동장에서 소년체전 사전경기로 열린 육상 여중부 원반던지기에서 39.09m를 기록, 김나연(충남 서림여중·36.73m), 하운진(경북 대흥중·36.22m)을 제치고 금메달을 획득했다. 김태빈은 전남 열린 포환던지기에서 14.22m를 기록, 이유미(대전 송촌중·13.35m), 김지우(서울체육중·13.29m)를 제압하고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목포서부초등학교 시절 포환던지기에서 금메달을 획득하며 소년체전에 데뷔한 김태빈은 1학년때 포환던지기 동메달을 획득한뒤 2학년때 원



목포하당중 김태빈(가운데)이 지난 17일 김해종합운동장에서 열린 제54회 전국소년체전 육상 사전경기 포환던지기에서 금메달을 획득했다. 전남도체육회 제공

반던지기까지 2관왕에 올랐다. 그리고 소년체전 마지막해인 올해 2관왕으로 대미를 장식했다.

여중부 멀리뛰기에서는 광양백운중 이하은(3년)이 5.75m를 뛰어 정채운(구룡중·5.28m), 정유진(북산중·5.23m)을 여유 있게 제치고 정상에 섰다. 이하은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 대회에서도 금메달을 차지하며, 전국소년체전 2연패라는 값진 기록을 달성했다. 이하은은 세단뛰기에도 출전해 11m42를 기록하며 동메달을 추가했다.

육상 트랙 부문에서도 값진 성과가 이어졌다. 남중부 400m에 출전한 전남체중 윤찬영(3년)이 50.31초의 기록으로 김준(48초46)에 이어 2위로 피니시라인을 통과했다.

광주에서는 광주체중 강요한(3년)이 남중부 멀리뛰기 결승에서 6.80m를 기록하며 박상현(충주중·6.84m)에 이어 은메달을 차지했다. 조혜원 기자